



국가성평등지수 72.7점, 대전시 지역성평등지수 78.0점 전년보다 성평등 수준 높아져

안전(▲8.7점), 가족(▲8.0점)
분야 성평등 수준 전년 대비
많이 개선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성평등 정책과제와 방향을 수립·평가하는 기초자료로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측정·발표한다. '16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2.7점으로 '10년 지수 측정 이래 매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년('15년)보다 2.5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었고, 의사결정 분야가 2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 지표별로는 총 25개 지표 중 19개 지표 값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6개 지표 값이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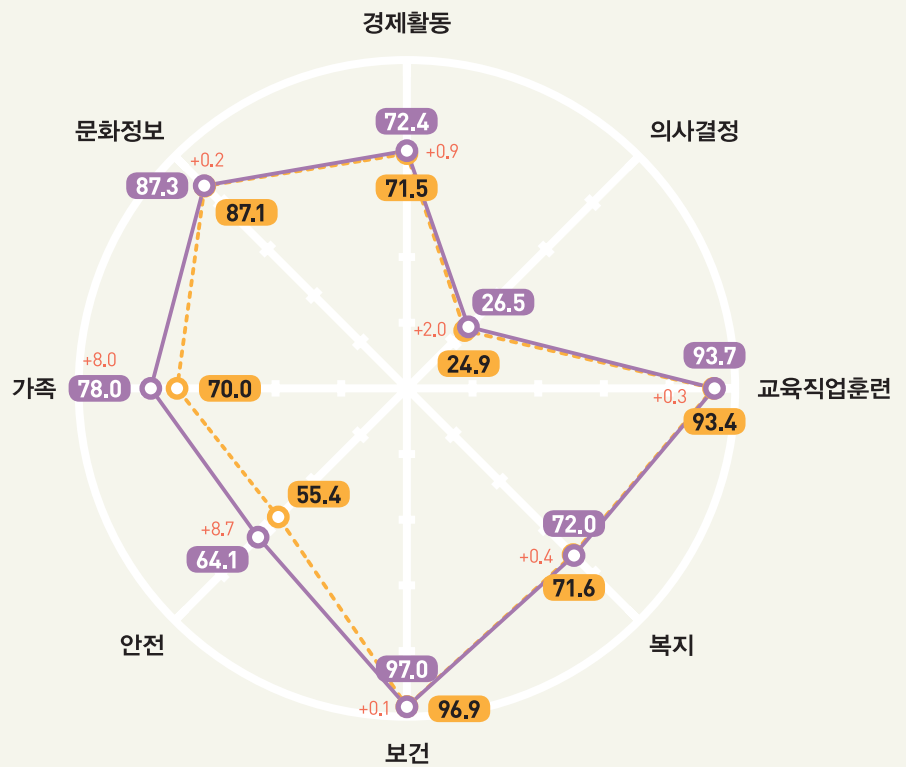
특히 육아휴직 성비가 33.6점으로 큰 상승 폭을 기록한 이유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제도 등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 (상승) 육아휴직 성비(33.6점↑), 정부위원회 성비(5.1점↑),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2.6점↑) 등
(하락) 성별 정보화 격차(3.0점↓), 장애인고용률(2.8점↓), 관리자(민간) 비율(1.4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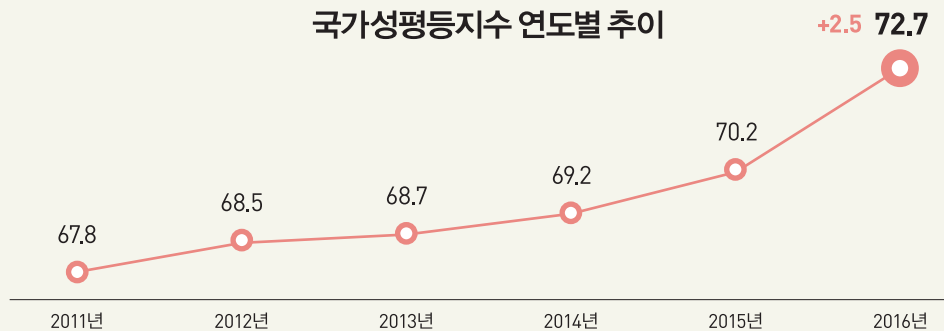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 「2017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수준 변화 현황

● : 2015년 ● : 2016년 단위: 점(완전 성평등=100.0)



국가성평등지수 연도별 추이



*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대전시 가족분야(▲5.6점)
성평등지수 8개 분야 중
가장 많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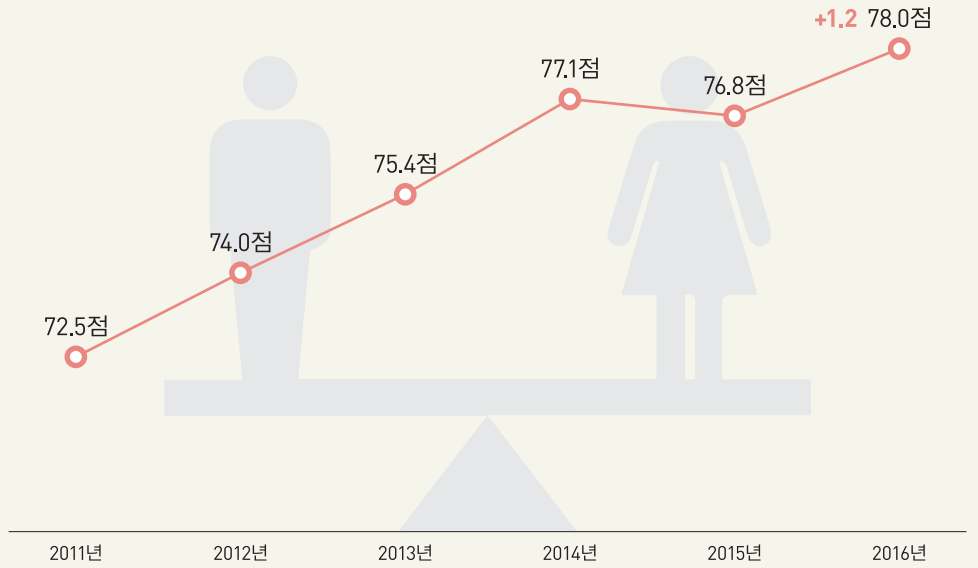
지역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전체와 시·도별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과 방향을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수단이다. 8개 분야*로 나뉘어 측정되는 종합지표로 완전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한다.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는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기준 대전의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78.0점으로 2015년 76.8점 대비 1.2점 상승해 대전의 양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이 성평등 상위지역(Level-1)¹⁾에 위치하며, 2011년 이래 성평등 수준 개선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전은 전년도 크게 하락한 안전 분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안전 분야의 경우 2016년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러한 상승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해 여성의 불안감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8개 분야) ① 경제활동, ② 의사결정, ③ 교육·직업훈련, ④ 복지, ⑤ 보건, ⑥ 안전, ⑦ 가족, ⑧ 문화·정보
* 지표는 성비로 파악
1) 지역성평등지수 값의 순위에 따라 상위지역, 중상위지역, 중하위지역, 하위지역으로 구분한다. 즉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류방식은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을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각 등급 내 시도 순서는 가나다 순서이다. (상위지역: 강원, 대전, 서울, 전북/중상위지역: 광주, 대구, 부산, 제주/중하위지역: 경기, 경남, 인천, 충북/하위지역: 경북, 울산, 전남, 충남)
* 출처: 여성가족부, 『2017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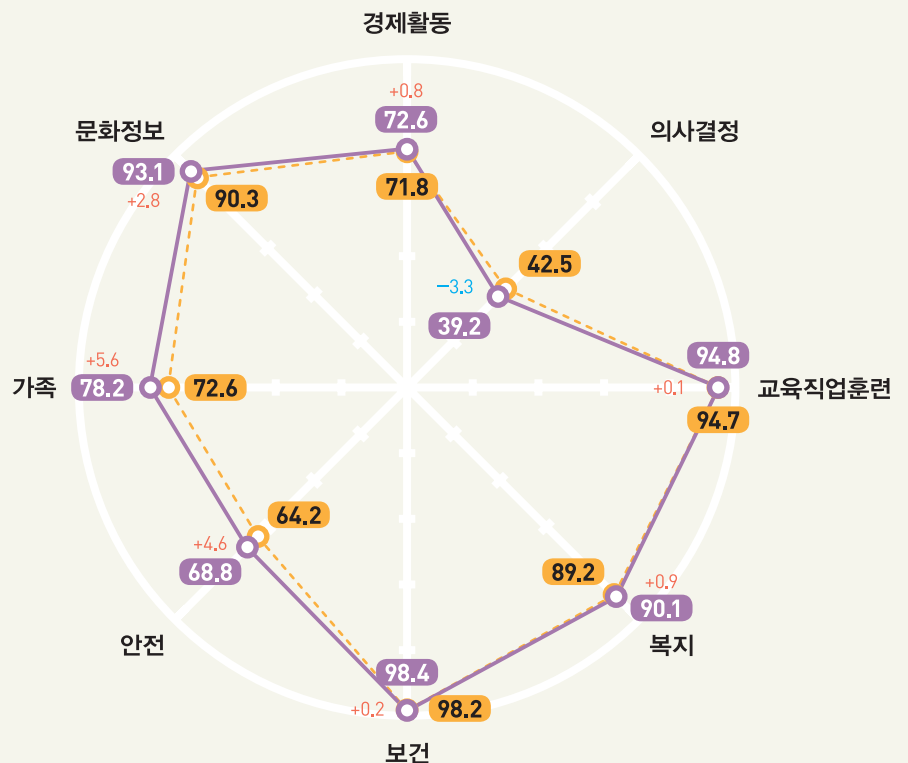
대전시 지역성평등지수 연도별 추이



*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 대전시 지역성평등지수의 경우 원자료 내 분야별 가중치를 근거로 산출함.

대전시 지역성평등지수 분야별 수준 변화 현황

● : 2015년 ● : 2016년 단위: 점(완전 성평등=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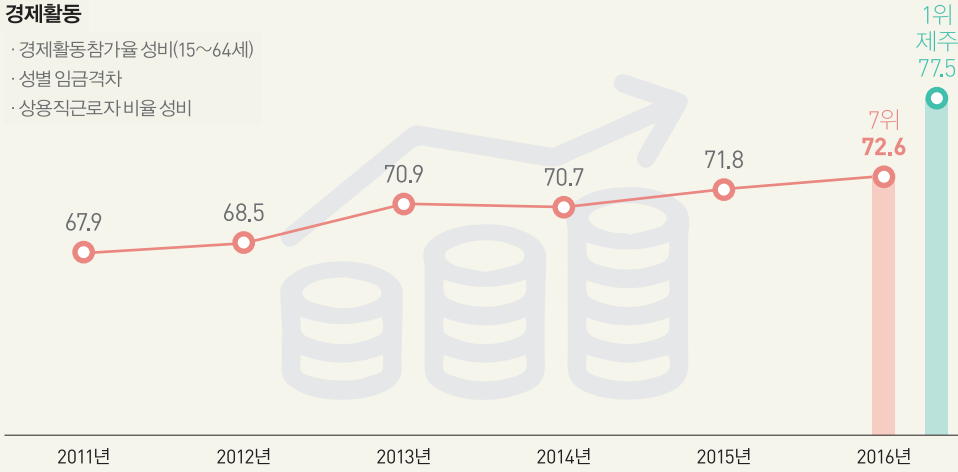
대전시 8개 분야별 비교 추이

2011년부터 대전시의 성평등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분야별 1위 지역과 대전시의 성평등지수 값을 비교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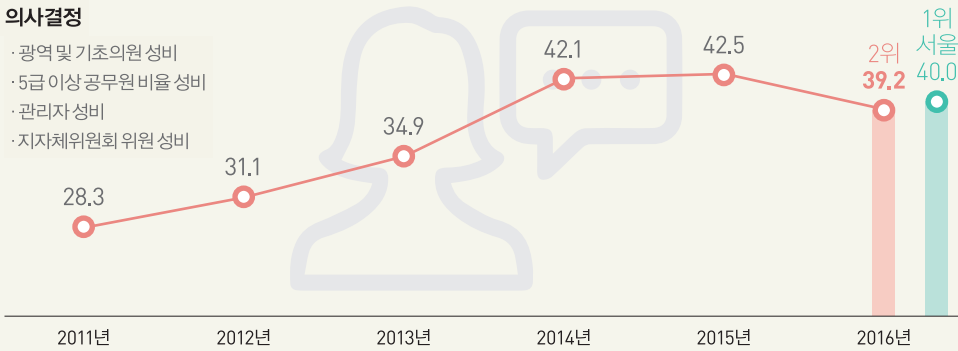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15~64세)
- 성별 임금격차
- 상용직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2011년 이래 높은 개선 추이를 보이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는 2015년부터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기 시작해서 2016년에도 하락하여 중하위권 위 치하게 되었다. 반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5년 큰폭의 상승에 힘입어 2016년에는 중상위권으로 올라섰다.

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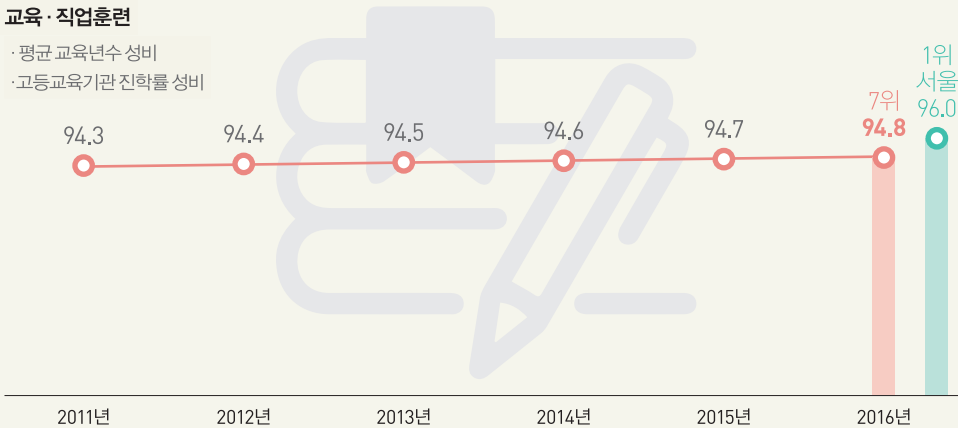
- 광역및 기초의원 성비
- 5급 이상 공무원비율 성비
- 관리자 성비
- 지자체위원회 위원 성비



2012년까지 중상위권에 위치했다가 2013년 상위권에 진입, 그 후 2014년 큰폭의 상승을 보이며 상위권 진입하여 2016년까지 유지했다. 2016년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세부지표 중 관리자 비율 성비가 2015년 36.9점(1위)에서 2016년 17.6점(9위)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교육·직업훈련

- 평균 교육년수 성비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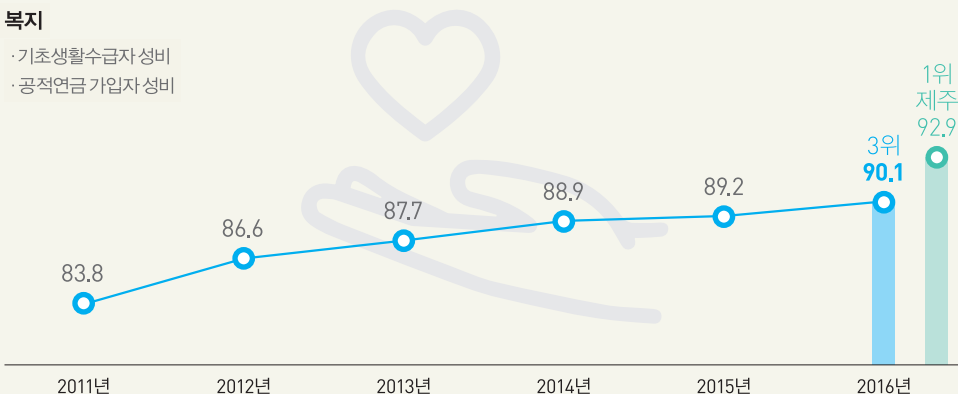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11년 이래 16개 시도중 7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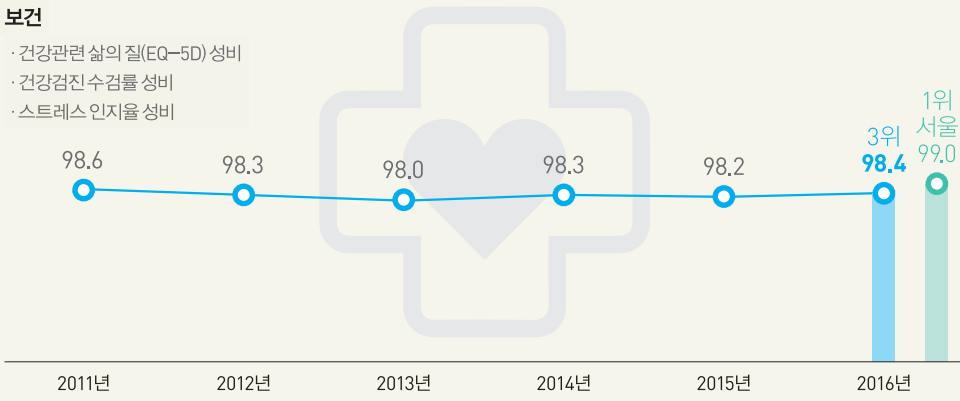
-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2011년 이래 구성 지표의 점진적 개선에 힘입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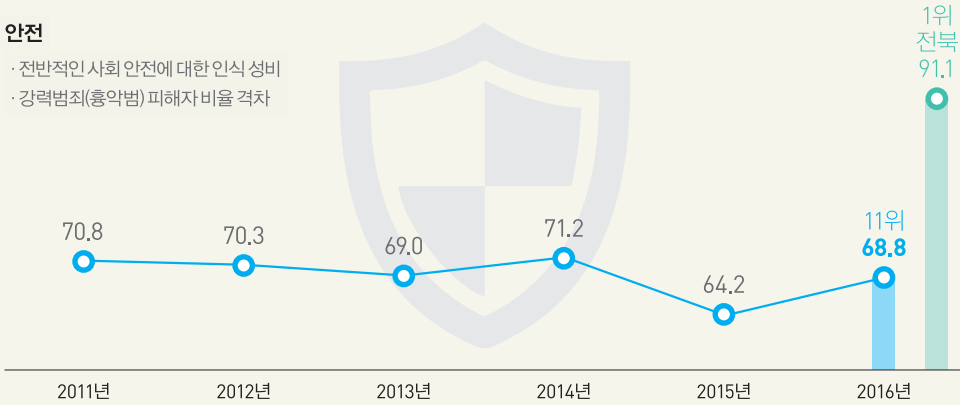
-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 건강검진수검률 성비
-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2016년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지표별로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 성비는 2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5위, 스트레스 인지율은 8위를 보였다.

안전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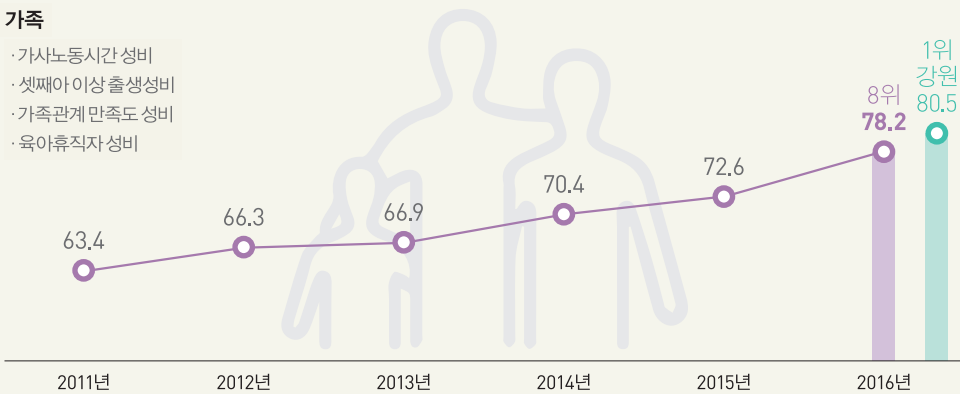


2014년 중상위권으로 진입했지만 2015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하여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지표 중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는 2015년 성폭력 여성 피해자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크게 하락했으며 2016년에 소폭상승하였다.

성평등 인식·문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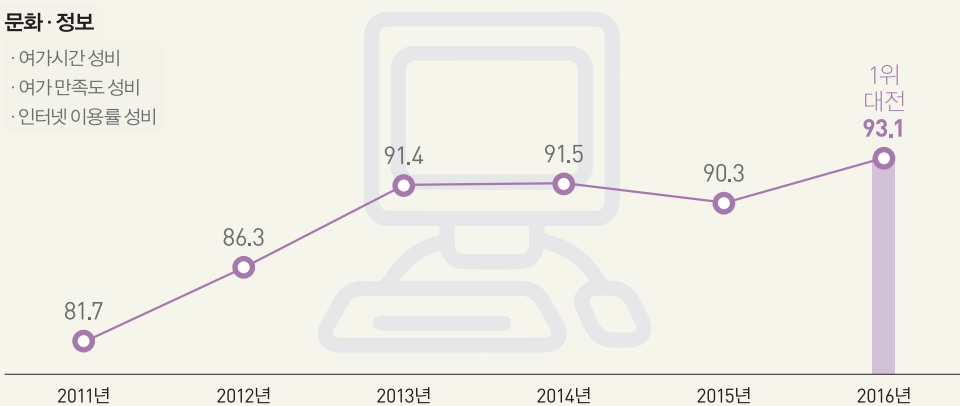
- 가사노동시간 성비
-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 육아휴직자 성비



2014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이후 하락하여 중상위권으로 낮아진다.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5년 성비 악화로 인해 상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고 계속해서 악화되어 2016년에는 중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문화·정보

- 여가시간 성비
- 여가만족도 성비
- 인터넷 이용률 성비



가장 높은 성평등 개선이 있는 분야 중 하나로, 2012년 이래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TEA & TALK

“지금, 여기, 우리 이슈(ISSUE)”

대전·세종지역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여성가족정책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간 교류로 지역의 정책현안을 청취하고 여성가족정책분야의 거버넌스 및 상생 기반의 구축을 위한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8년 3월 8일(목) 13시30분 장소 | 대전세종연구원 1층 소회의실

추천도서

《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판매·성노동’ 이슈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줄 소통과 기록의 공간

지은이 | 성판매여성안녕들하십니까 기록팀

www.tumblr.com/keepspeaking

